

성적하락 사고·연루 땀 ‘합격취소’ 날벼락도

12학년 2학기, 유종의 미 거두어야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조기합격생 발표가 끝났고 봄이 되면 정시 합격자에 대한 발표도 있게 된다. 12학년 2학기를 맞게 되는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이미 대입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있고 정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마치 본인이 대학생이라도 벌써 된 듯한 기분이 들어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운전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학업을 소홀히 해 성적이 크게 떨어질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UC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원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학업성적을 포함해 최신의 정보를 요구한다. 특히 재정보조에 관한 리뷰를 사전에 미처 합격한 드림대학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2학년 2학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대입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졸업에 필요한 과목 이수 확인

졸업반이 되면 대학 입시 절차 속에서 빠빠는 핑계로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이수했느냐 점검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다음 단계인 대학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가능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졸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UC와 사립대학이 학교 별로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의 차이가 있고 또한 전공별로도 이수과목이 차이가 난다. 대학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때 영어와 수학 등에서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은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마지막까지 성적에 전력투구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학업성적이다. 학업성적은 학생의 성실성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며 12학년 1학기는 물론 2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9-11학년 때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졸업장을 손에 쥘 때까지 AP, 아너스 과목을 계속해서 듣고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12학년 2학기때에는 졸업을 앞두고 들뜬 마음에 학업을 소홀히 하면서 간혹 성적이 크게 떨어질 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학점을 유지하던 학생이 C로 떨어진 경우는 보통 넘어가지만 만약에 A, B 학점을 유지하던 학생이 갑자기 D, F로 떨어질 때는 특별한 해명 이유가 없다면 불합격 통보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졸업하는 날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어드미션 매스터즈의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는 “종종 모범생의 경우에도 12학년 졸업성적이 크게 떨어져 대학으로부터 낙방 통고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대학에 합격했다고 성공한 듯이 착각에 빠지면 안되고 졸업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불행하게도 학기 시작 며칠을 앞두고 12학년 2학기 학점이 나빠지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롤링 어드미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은 다양한 입학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번 실수로 인성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입학원서를 받는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후 편입을 노려볼 적도 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해서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한다면 등록금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가족간의 시간도 즐긴다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상 대입을



고교 졸업반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졸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AP)

졸업학점 빠짐없이 이수했나 재점검 필수 경연대회 수상 땀 신속히 정보 업데이트 불합격 대학엔 미련 버리고 새 기회 모색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하게 되며 특히 가족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다. 따라서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빠서 가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아니면 회식을 같이 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때는 기숙사 생활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가족과는 당분간 떨어져 있게 된다고 보면 된다.

대학에 간신히 입학해서도 기숙사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가족간에 다진 추억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마련이다.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리더십 경험을 쌓거나 학력 경시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 경연대회 등 중요한 이벤트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 관련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한다. 대학으로부터 웨이팅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내

용을 대학에 보내주면 합격의 가능성을 한결 올릴 수 있게 된다.

■인터뷰를 준비한다

UC의 경우는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많은 사립대학들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를 인터뷰한다. 인터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도 있고 캠퍼스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되기도 한다. 입학사무실 관계자, 해당 대학 동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하도록 신경 쓴다. 인터뷰는 지원한 대학에 대한 나의 관심과 열정, 나의 특별함을 대학 관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학비보조 사전대비 중요하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대학 등록금의 부담으로 간신히 합격한 드림스쿨을 본의 아니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합격에만 치중한 나머지 재정보조를 미처 챙기지 못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전에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러나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장학금을 주거나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는 대학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각종 그랜트와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스타라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리서치하고 본인이 지원한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이 무상보조를 많이 지급하는지 미리 따져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합격한 대학을 기억에서 없앤다

조기지원한 드림스쿨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크게 상심해할 수 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입학 문을 통과하는데 실패한 대학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대학에 가느냐보다는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만한 나머지 학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라도 감사하게 수용하고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졸업할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

(박홍률 기자)

Taekwondo And My Life



Elainia Gupta
New Trier High School 11th grade

Taekwondo has made my life more balanced, by adding to my character. Over the years it has never failed to humble me, reminding me to be more kind to the people surrounding me, more patient, and more calm. When I started five years ago, I did not expect it to affect me so profoundly. I could not have been more wrong. Initially, I was reluctant to start. My sisters and my family friends had started while I was watching from the sidelines; they even made it to orange belt before I joined. But now that it is a part of my life I can not imagine how empty my life would be without it. Its values influence my thinking, my actions and my attitudes, making my approach to life entirely different than if I had never started. Even if I do not always perceive it, its presence is always there, weighing heavily on my shoulders. The most important lesson I have learned from taekwondo is kindness. Sarang, love,

resonates with me. Its emphasis at taekwondo has carried beyond the classroom. I have tried to embrace my teammates, my school peers, my family, and anyone I meet with an open heart. It is one of the most valuable lessons taekwondo has taught me. Most people would think this ironic: a sport based on physically attacking your opponent teaches love and kindness? If it is the only thing I have taken away from taekwondo, it is that although it may seem to be about fighting, it is truly about defending the ones you love and yourself in a time of need. Which, in a way, is its own act of love, because you are trying to help people if they can not help themselves. This emphasis, has given me new friendships. Through the years of taekwondo, throughout the different forms and kicks, throughout the new belts, I have formed deep bonds with my teammates. Some started at white belt with me, and now we're testing together; Other friendships I have forged at different belts, eventually a person leaving another behind. Regardless of their new rank, we have stayed friends class after class. Taekwondo has its own unique community attached to it. It brings together people of different ages, I love teaching the little orange belts and can not wait to see them each class. I especially enjoy the awkward middle schoolers scattered between ranks of red, dark blue, and skunk belts. Being surrounded by people of different capabilities definitely develops your pa-

tiency. Especially when you work with the younger members. If you do not develop patience while trying to teach taekwondo, then you haven't taught rambunctious, six year old white belts who have more interest in their dinner than your instructions. Don't get me wrong, it has been so wonderful to teach little kids taekwondo and help them take steps towards a black belt, they just sometimes aren't interested in your help. That's ok, that's where the patience comes in. Eventually the kids will come around and focus all the attention they have onto the task of a mediocre front snap kick. While they may test my patience, I always have that reminder of Sarang, to treat them with kindness because they are learning, just like I once was. Making sure I was ready for this belt, I was given the ultimate test of patience. The three days of fasting was the biggest challenge of patience. Three days with only water and a very acidic juice mixture. Three days of knowing that I could at anytime stop the fast and eat something, anything to satisfy the overwhelming hunger, and that I wouldn't, was the most difficult thing I have ever done. My patience was rewarded at the end of the three days, with the most delicious bowl of miso soup I have ever tasted in my life, and the great effort and determination that went into it made it taste so much better. Even when I'm not practicing, teaching or fasting, taekwondo still finds ways to influ-

ence my life. I've found taekwondo to be so calming, that whenever I'm stressed, I just take a minute to do a form. The repetitive motions and breathing in time with the movement is so soothing, that doing it over and over again never fails to focus me. This may not be the best thing to hear from a soon-to-be black belt. A form should be intense, the motions fast and sharp. There should be nothing relaxing about it. This is definitely true. Practicing performance style does not necessarily relax me, rather it gets me moving, gets my blood pumping. However, when I'm just practicing to memorize the form, the rhythm of a form make me more calm, and focused than before. It is a comfortable set of movements that will not change, no matter what. Wherever I go, taekwondo comes with me. Not only do I try to honor its values, but it has almost become a part of me. It has become a part of my character. It has been years and years of practice, starting when I myself was an awkward, lanky, middle schooler, and carrying on and growing with me into the more proportional and (hopefully) less awkward person that I am today. It has seen me through good days and bad days, good grades and bad tests, good jokes and bad puns. It has seen me at my worst, and built me up to the best that I am today, and the best that I can be. With Sarang ringing in my ears, I go through life hoping to make my class proud, and hoping to be deserving of my belt.